

「외국계 금융회사 CEO 오찬 간담회」 결과※

('20. 2. 10.(월), 금융위원회 국제협력팀)

※ 간담회에 앞서 금융사 건의사항 사전공유 없이 당일 간담회에서 즉석으로 제기된 의견을 정리

※ 간담회 개요

- ▶ (일시 / 장소) '20. 2. 10. (월) 11:50 ~ 13:10 / 여의도 콘래드호텔 6층 스튜디오
- ▶ (주최 / 후원) 금융중심지 지원센터 주최 / 금융위 · 금감원 후원
- ▶ (주요참석자) 금융위원장, 금융중심지지원센터장(금융감독원 수석부원장),
외국계 금융회사 CEO(17명), 한국투자공사 부사장
- ▶ (논의주제) 국내 진입 외국계 금융회사 애로·건의사항 청취

1. 외국계 금융회사 주요 애로·건의사항

- ◇ 한국 금융시장에 대해 매력적인 투자처라고 인식하면서도 과거 및 기타 신흥국에 비해 투자매력도가 하락했다는 의견 제시
 - 외국계 금융사들이 직면하고 있는 애로·건의사항을 바탕으로 한국이 금융중심지로 발돋움할 수 있기 위한 다양한 제언 공유

① 정보공유 · 내부통제 관련 [차이니스월]

- 계열사간 정보공유, 내부통제 관련규제를 완화하여 국내에서의 보다 원활한 영업활동을 지원해주시기를 건의
 - 법 개정애 앞서 현행 법 하에서 금융당국의 입장이 실린 가이드라인 또는 규제 해설서 등의 배포도 고려 요청
 -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입법지원 당부

☞ (위원장님/자본시장과장) 선진국과 같이 차이니스월 규제를 사후감독 중심으로 전환하는 법률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된 상태로 조속한 통과를 위해 노력하겠음

- 법 개정 이전에는 현행 규제의 불확실성 해소를 위해 구체적인 사안별로 요청시 비조치의견서 등을 적극 제공하겠음

② 규제의 불확실성에 따른 영업활동 애로

- 법 · 규정에 대한 금융당국의 해석 · 의견이 수차례 바뀌는 등 규제체계에의 불확실성이 높은 상태

- 한국내 영업활동을 지속/확대해나가기 위해 특히 신규서비스에 대한 규제명확화를 통한 법적안정성 및 예측가능성 제고 요청
- 의견 요청시 회신이 지연되는 경우가 있어 조속한 답변 요청

☞ (위원장님) 법적안정성 및 예측가능성 제고를 위해 당국의 법령해석, 비조치의견서 등에 대한 회신을 명확히, 조속히 하도록 하겠음

3 주52시간 적용대상에서 예외 인정 요청

- 주52시간 적용으로 인해 他 해외지점 대비 경쟁력이 저하되며, 해외지점과의 업무협조 등 근무시간外 업무가 불가피한 경우
- 금융위 소관은 아닐 것이나, 외국계 금융사 직원은 주52시간 적용대상 제외 요청

☞ (위원장님) 예외조항이 많을 경우 법적안정성이 저하될 우려가 있으므로 신중검토가 필요하나, 제도 정착상황 등을 보아가며 고용노동부에 의견을 전달하겠음

4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 대비 조치 요청

- 금번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를 비상사태로 엄중하게 생각하고 있는 만큼 영업활동 예외상황 인정, 가이드라인 배부 등의 조치 요청

☞ (위원장님) 예외적인 경우 재택근무를 위한 조치 등 유사한 사태 발생시 행동요령을 고민해보겠음

2. 위원장님 맺음말씀

- 한국시장으로의 진출경험을 기초로 한국이 금융중심지로 발돋움할 수 있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제언해주심에 깊이 감사드립니다
- 제기해주신 사항들이 한국에 진출하고자 하는 외국계 금융사들에게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음
- 아울러, 간담회에서 건의된 애로사항이 최대한 해소될 수 있도록 관련사항을 소관부서와 공유하여 업무에 참고토록 조치 예정

참 고

간담회 참석 외국계 금융회사 대표 명단

업권별 구분		참석 금융회사	국 가	대표명
은행 (8개사)		중국건설은행	중 국	전 민 (Quan Min)
		중국은행	중 국	황 덕 (Huang De)
		BNP파리바 은행	프랑스	필립 누와로 (Philippe Noiro)
		아이엔지(ING) 은행	네덜란드	현 종 훈
		스테이트스트리트 은행	미 국	임 영 규
		뱅크오브아메리카 은행	미 국	신 진 욱
		엠유에프지(MUFG) 은행	일 본	후지모토 준 (Fujimoto Jun)
		미즈호 은행	일 본	코로야스 토시로 (Koroyasu Toshiro)
금융투자 (6개사)	증권 (4개사)	메릴린치 증권	미 국	박 승 구
		노무라 금융투자	일 본	후루야 타쿠야 (Furuya Takuya)
		골드만삭스 증권	미 국	사이먼 허스트 (Charles Simon Hurst)
		모건스탠리 증권	미 국	한 승 수
	자산운용 (2개사)	블랙록 자산운용	미 국	최 만 연
		교보악사 자산운용	프랑스	조 옥 래
보 험 (3개사)		뮌헨재보험	독 일	마이클 하우어 (Michael Hauer)
		에이아이지(AIG) 손해보험	미 국	민 홍 기 (Douglas Min)
		에이아이에이(AIA) 생명보험	홍 콩	피터 정 (Peter Chung)

※ [국가별 구분] (미국) 7개사 / (일본) 3개사 / (중국) 2개사 / (프랑스) 2개사
(네덜란드) 1개사 / (홍콩) 1개사 / (독일) 1개사